



“가끔 소리내어 네 이름을 불러보곤 해.”

“셀 수 없이 많은 빛나던 순간을 너와 함께였다는 것이
두고두고 고맙다.”

“얼마전 꿈에서 만나 안부를 물었을 때,
그 곳은 어떠한 질문에 네가 활짝 웃어주었던 기억이 난다.”

“하늘에서는 그때의 환한 미소로
흥 넘치게 잘 지내고 있길 바랄게요.”



故송민영 4주기 추모집